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 목차

###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싱가포르, 벙커링 공급 감소 지속...중동 리스크로 선사 운영 부담 확대

###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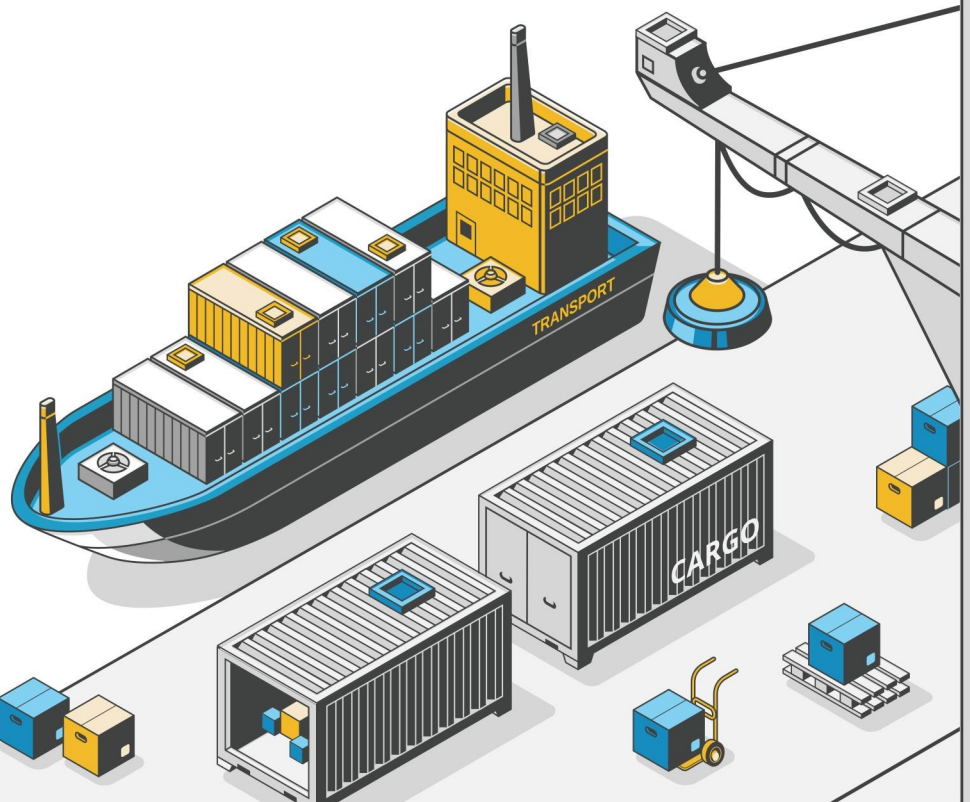
-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美, '팍스 실리카' 펀드 조성...동맹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독일·리투아니아, 주요 항만권역 연계 통합복합운송 회랑 구축 추진
- 호르무즈 봉쇄 한 달...에너지에서 식량까지 번지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 싱가포르, 벙커링 공급 감소 지속... 중동 리스크로 선사 운영 부담 확대

- ▶ 중동 리스크로 벙커 연료 공급 압박 확대

  - 세계 최대 벙커링 허브인 싱가포르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연료 공급 압박이 확대되고 있음
  - 전체 벙커 연료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되는 구조로, 해당 해협 봉쇄로 주요 공급 경로에 차질이 발생함
  - 현재 재고는 통상 수요 기준 약 3주 수준으로 평가되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재고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 공급 제한으로 선박 연료 조달 여건 악화

  - 저유황유(VLSFO)의 공급 리드타임이 일부 1주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즉시 공급 가능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임
  - 일부 공급업체는 기존 장기 계약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대체 공급 확보 및 수입 다변화 추진

  - 싱가포르는 브라질, 러시아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 공백에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수입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 벙커 연료 가격 상승 이후 일부 조정 국면

  - 2월 28일 이후 공급 부족으로 싱가포르의 벙커유 가격이 상승했지만, 3월 중순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임
  - 4월 1일 싱가포르에서 저유황유는 톤당 873.5달러로 2월 27일 대비 70% 상승한 수준이나 3월 16일 고점 대비(톤당 1,119달러) 낮은 수준임
  - 고유황유(HSFO)는 2월 27일 톤당 695달러에서 3월 9일 톤당 약 1,073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해양가스유(MGO)는 4월 1일 기준 톤당 1,836달러로, 전쟁 이전 가격보다 16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글로벌 벙커링 허브 간 가격 격차 확대

  - 로테르담은 중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 Ship & Bunker에 따르면, 4월 1일 로테르담에서 VLSFO는 톤당 716.50달러, HSFO는 톤당 661.50달러, MGO는 톤당 1,331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같은 시점에 싱가포르 대비 낮은 수준으로, 주요 벙커링 허브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선사는 연료 할증료 부과 및 운영 전략 조정 등으로 대응 확대**
  - 선사들은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항로별 긴급 연료 할증료를 도입하며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음
  - 머스크는 3월 25일부터 장거리 직항 노선에 대해 FEU당 400달러(냉동 600달러), CMA CGM은 3월 27일부터 TEU당 265달러(냉동 320달러)의 비상 연료 할증료를 부과
  -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는 TEU당 160달러(냉동 210달러), MSC도 항로별 유류 할증료를 적용하는 등 주요 선사 전반에서 비용 전가가 확대되고 있음
  - 이와 함께 감속 운항, 항로 조정, 공선 운항 등 운영 전략 변화도 병행되고 있음
- ▶ **연료 가격 상승은 선박 운영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중동 리스크에 따른 벙커유 가격 상승과 보험료 인상 영향으로 선사들의 추가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하팍로이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추가 비용이 주당 약 4천만~5천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밝힘
  - 선사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분을 할증료 형태로 반영하고 있으며, 수익 확보보다는 비용 회수 목적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머스크는 긴급 유류 할증료의 신속 적용을 위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사전 통지 기간 면제를 재요청하는 등 제도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음
- ▶ **중동 리스크는 글로벌 벙커링 공급과 선박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
  - 특정 해협 의존도가 높은 연료 공급 구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벙커 연료 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간 가격 격차 확대 사례에서 보듯, 주요 벙커링 허브 간 공급 여건 차이가 가격 구조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연료 가격 상승은 실제 선사의 연료 할증료 부과로 이어지며 해운 운임 및 운영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운시장에서는 연료 공급 리스크에 대응해 비용 회수 중심의 운영 구조 변화 및 감속 운항 등의 운영 전략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https://www.joc.com> (검색일: 2026.03.31.)

## 美, '팍스 실리카' 펀드 조성...동맹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 美 국무부는 의회와 협력해 신규 조성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 펀드에 약 2억 5천만 달러(약 3,700억 원 규모)의 해외원조 자금을 배정하겠다고 발표

  - 팍스 실리카는 '평화(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결합한 개념으로,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기반 공급망 협력체계를 의미하며, '25년 12월 서밋(summit)'을 계기로 출범함
  - 동 펀드는 2억 5천만 달러의 초기 재원을 바탕으로 국부펀드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며, 핵심 광물의 채굴·가공, 반도체 생산 기반 구축, 에너지 및 물류 인프라 확충, 제조 자산 확보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 지원 계획임
  -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병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항만, 물류 회랑, 에너지 시설 등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공동 투자와 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됨
  - 이는 공급망을 단순한 물류 흐름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생산·운송·에너지·데이터를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확장하려는 美의 정책 방향을 반영함
  - 아울러 기존의 빈곤 완화 중심의 해외원조를 산업·경제 안보 목적의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팍스 실리카(Pax Silica) 펀드 개요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이자 투자 협력체제로, 반도체·AI·에너지·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구축하려는 정책 구상</li> </ul>
투자 규모 및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규모) 최대 1조 달러(미국 약 2억 5천만 달러 투자)</li> <li>• (투자 분야) 반도체 및 AI 인프라,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첨단 제조 및 데이터 센터, 항만, 물류 회랑 등 물류 인프라</li> </ul>
참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무부 + 동맹국 정부(일본·한국·이스라엘·영국·호주·스웨덴·UAE·카타르 등) + 국부펀드·기관투자자 + 전략 산업 기업까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투자 모델</li> </ul>
주요 참여국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전략 설계, 한국·일본= 반도체 제조 및 설계·연구, 싱가포르=중동 국부펀드 국가=AI 인프라 허브 및 투자 자본, 기타 동맹국=기술 및 공급망 협력 보강</li> </ul>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Pax Silica", 2025를 기반으로 작성 (검색일: 2026.03.30.)

-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신뢰 기반의 전략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

  - 팍스 실리카의 핵심은 반도체, AI, 핵심 광물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신뢰 가능한 파트너'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생산·가공·물류·인프라를 연계한 통합적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 특히 美 국무부는 이번 펀드를 통해 ‘원조가 아닌 무역(Trade Not Aid)’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민간 투자와 동맹국 참여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창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이는 과거 비용 효율성을 우선시하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앞으로는 국가 간 신뢰, 안보,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주요 해상운송로 리스크 확대 사례는 특정 자원과 운송 경로에 대한 높은 의존이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이 공급망을 안보 영역으로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구상이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동맹 기반 투자 확대와 글로벌 자본 유입 구조 속에서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은 해외 인프라 사업, 전략 산업 투자,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공급망이 동맹 중심 블록화 구조로 재편될 경우, 특정 국가 및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는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단순한 비용 경쟁력 확보를 넘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 항만·내륙 물류 네트워크 다변화, 전략 자산 투자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공공 투자, 정책 금융, 민관 협력 체계를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물류 산업과 공급망 경쟁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https://www.bloomberg.com> (검색일: 2026.03.31.)

## 독일·리투아니아, 주요 항만권역 연계 통한 복합운송 회랑 구축 추진

- ▶ 발트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공급망 재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의 함부르크항, 뤼베크항과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항 간 공급망 협력 추진

  - 함부르크·뤼베크 측 대표단은 'German-Lithuanian Maritime Forum'에 참여해 항만 간 협력과 내륙 복합운송 회랑 확대를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함
  - 'German-Lithuanian Maritime Forum'에는 정치, 항만, 물류 분야 이해관계자 약 100명 이상이 참가함
  - 해당 포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보 문제를 포함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이 논의됨
  
- ▶ 함부르크항, 뤼베크항, 클라이페다항 이해관계자들은 각 항만의 지역적 기능과 연계 효과성을 고려해 물류 네트워크 협력 가능성을 제시

  - 함부르크항의 對리투아니아 '컨' 물동량 규모는 '25년 142,000TEU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함
  - 이는 리투아니아가 함부르크항의 발트 지역 내 핵심 교역 국가임과 동시에 협력에 따른 실질적 수요 기반이 있음을 제시함
  - 지난해 뤼베크항은 발트 중부, 남부 유럽을 대상으로 피더 운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모달 내륙 연계 운송을 도입해 물류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클라이페다항은 '25년 발트 3국 전체 물동량의 40%에 해당하는 3,900만 톤을 처리했고, '24년 대비 2배 규모의 군수화물 56,100톤을 처리함
  
- ▶ 또한 3개 항만권의 복합운송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해 유럽지역 대상 내륙 연계 강화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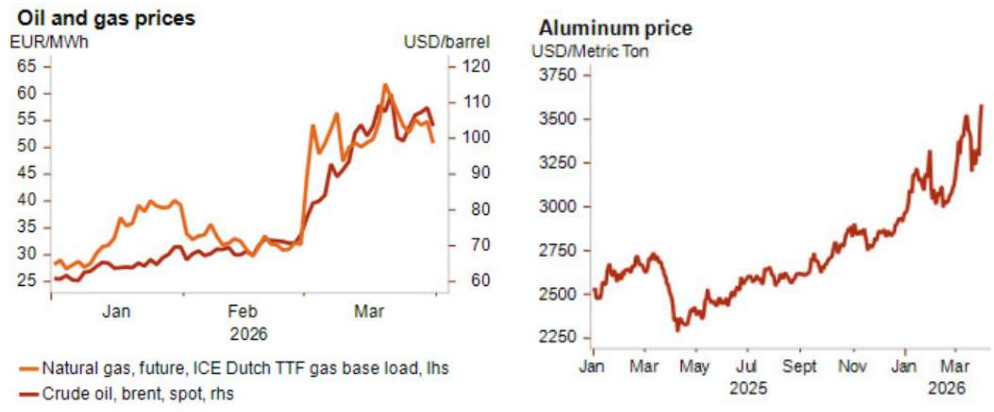
  - 각 항만과 유럽의 배후지역 연계를 통해 항만권역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 지정학적 안보에 대응 가능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함
  - 함부르크항의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기능, 뤼베크항의 발트해 연결 허브 기능, 클라이페다항의 동부 발트권역 관문 기능이 연계되어 항만 중심의 복합물류 운송 회랑 구축 전략을 모색함
  - 모달 시프트를 통해 공로 운송 화물을 연안 및 철도 운송으로 전환해 분산형 공급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도모함
  - 이 외에도 ESG와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 추진 가능

- ▶ **항만 간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전략적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클라이페다항과 뤼베크항 간 항로 운영 효율화와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의 운송 네트워크 고도화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임
  - 또한 뤼베크항을 중심으로 내륙 인터모달 네트워크를 중부·남부 유럽으로 확장해 복합운송 기능을 강화하고 회랑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
  - 함부르크항은 외항 네트워크를 통해 리투아니아 및 발트권역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안보와 관련된 물류 기능 강화 및 항만권역 협력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 호르무즈 봉쇄 한 달...에너지에서 식량까지 번지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하며 단기 혼란을 넘어 중장기 회복 지연 가능성 증대**
  - 중동 지역에서 한 달간 이어진 분쟁과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글로벌 경제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수출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영향은 석유·가스뿐 아니라 다양한 중간재와 원자재로 확산되고 있음
  - GCC발 수출 차질은 이미 에너지·제조·운송 부문 전반에서 공급 부족, 생산 지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해상 운송 물량 도착 이후 재고가 줄어들면서 공급망 불안이 더 뚜렷해지고 있음
  - 분쟁이 조기에 진정되더라도 인프라 복구, 설비 재가동, 항만 병목 해소에 시간이 필요해 공급망 정상화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추가 확진 시 회복 지연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해협 봉쇄와 에너지 인프라 피해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감소 및 가격 급등 지속 가능성 확대**
  - 호르무즈 해협은 평시 전 세계 원유의 약 20%와 LNG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로 봉쇄와 에너지 인프라 피해가 겹치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불안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브렌트유는 2월 28일 이후 약 50%, 유럽 가스(TTF) 가격은 약 60% 상승했으며, 브렌트유는 전쟁 발발 이후 약 60% 안팎으로 급등한 상태임
  - IEA에 따르면 9개국 40개 이상 에너지 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일부 우회 수출에도 불구하고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음
  -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도 한국·중국·이탈리아·벨기에 등 일부 장기 LNG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함
  - 따라서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인프라 복구와 물류 병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에너지 가격의 고점 부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항공유 가격 상승과 우회 항로 증가로 항공 산업 비용 부담 및 운영 리스크 확대**
  - 중동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공 허브인 만큼 이번 분쟁은 여객·화물 항공 모두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항공유 가격 상승과 연료 조달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우회 항로 확대로 비행 거리와 운항 시간이 증가하면서 운영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연료 헤지(hedge) 비중이 낮은 북미 항공사들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중동 분쟁 이후 에너지 및 알루미늄 가격 추이



자료: ICE, LME(검색일: 2026.04.06.)

- 헬륨 등 핵심 소재 공급 차질 우려로 반도체·광케이블·의료기기 생산 불확실성 확대

  - 반도체, 광섬유 케이블, 의료 영상 시스템 등은 중동발 원자재·물류 차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열 관리에 필수적인 헬륨은 대체재가 사실상 없고 생산국도 제한적임
  - 카타르는 주요 헬륨 공급국 중 하나이며, 액화 헬륨은 저장성이 낮아 공급 차질 발생 시 다른 소재보다 생산 차질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정제유·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운송 연료와 석유화학 원료 시장의 가격 상승 및 생산 차질 동시 발생

  - 전 세계 거래 정제 석유제품의 약 10~1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걸프 정유시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디젤·휘발유·항공유 수급 불안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여러 국가가 자국 내 공급 확보를 위해 배급제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시장의 공급 압박이 더 커지고 있고, 동시에 나프타 부족으로 아시아 플라스틱 업체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음
  -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생산의 핵심 원료여서 공급 차질이 단순 연료 시장을 넘어 석유화학·플라스틱·합성섬유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임
  
- 비료 원료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및 식량 가격 상승 압력 확대 고조

  - 걸프 지역은 글로벌 암모니아 수출의 27%, 인산염의 22%, 황의 45%를 담당하고 있어 이번 차질은 비료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음

- 비료 시장은 전략 비축이 거의 없는 적시 조달 구조에 가까워 가격 반응이 빠르며, 질소 비료의 약 25~33%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천연가스가 핵심 원료라는 점에서 공급 차질이 증착되고 있음
- 여기에 황 부족, 사우디 인산염 수출 차질, 중국의 인산염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대표적인 인산 비료(DAP·MAP)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단기 대체 수단이 제한적인 인도·브라질·동남아는 농업 생산성과 식량비 측면에서 더 취약한 편임

▶ 에너지 가격 상승이 철강·화학·시멘트·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며 지역 간 경쟁력 격차 확대

- 원유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충격이지만 가스 가격은 미국보다 유럽·아시아에서 더 크게 오르며 제조업 부담이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음
- 그 결과 철강, 비료, 시멘트, 유리, 식품, 발전, 정유, 섬유, 제지,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자동차·기계 등 하위 산업으로도 파급되는 양상임

▶ 중동 생산 차질과 낮은 재고가 맞물리며 알루미늄 공급 부족과 제조업 생산 차질 가능성 확대

- 중동은 글로벌 정제 알루미늄의 약 1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란의 공격 이후 알루미늄 가격은 3월 30일 톤당 3,492달러까지 상승해 최근 4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알루미늄 바레인과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가스 공급 차질과 물류 병목으로 일부 제련소 가동이 중단·축소되고 있으며, 운송·보험 항만 접근성 문제까지 겹쳐 일시적 차질이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미 글로벌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중국도 생산 제한 정책과 내수 수요 증가로 충분한 대체 공급원이 되기 어려워 자동차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사재기와 재고 소진 압력이 함께 커지고 있음
- 특히 중동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일본은 더 취약하며, 자동차 산업은 신규 공급처 전환에 장기간이 걸려 분쟁 장기화 시 2026년 중반 이후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credendo.com> (검색일: 2026.04.06.)

#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6. 4. 8(수) - 5. 8(금)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제출 방법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동환 센터장  
T 051-797-4913 E kdong@kmi.re.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797-4648 E hjsung@kmi.re.kr



### 사업 개요

####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선택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지원 (조사비용의 최대 50%)

####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  
현지 물류시장 조사, 해외법인 설립 등에 소요되는  
조사 비용 지원

- ①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  
국외출장비, 컨설팅비 등 직접 비용
- ②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  
국외출장비, 컨설팅비 등 직접 비용  
(단,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 자문 비용으로 제한)

###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지원 (조사비용의 최대 50%)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국제물류정보포탈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up>Ch</sup>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국제물류정보포탈'을 추가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 KAKAO 채널 등록하기



1 카카오톡 검색창에 '국제물류정보포탈'을 검색합니다.



2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